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6호 [루게 제25279호] 주제 105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평도에 의하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주고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현대적인  
양묘장이 세상이 보란듯이  
희한하게 건설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인민군대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  
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현 동지, 국토  
환경보호상 김경준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분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  
들, 양묘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을 지식경제시  
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  
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

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결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122호양묘장현대화공사가  
품이 많이 들수 있지만 한번 잘해놓으  
면 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모들을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다고, 자신께서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찰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힘껏 밀어주겠으니 나라  
의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  
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공사를 대담하게 내밀어  
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  
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투  
입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적 과업을  
심장깊이 새기고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군들, 군인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  
을 높이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르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선물  
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제전을 벌려 122호양  
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양묘장으로  
전변 시킴으로써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  
로 드리자고 하였는데 인  
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번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22호 양묘장이 정말 요란하다고, 하나의 건축군이 형성되었다고, 지난해에 보았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나라의 첫 양묘공장이 멋들어지게 일떠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면서 한생토록 나라의 산림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장군님의 념원을 반드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온도, 습도, 해비침도, 린산가스함량, 동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단일한 수종의 나무모를 키워내는 양묘장과는 달리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적인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우리의 혁명적인 지식인들은 못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나무모들의 생육조건을 최적화할수 있게 모목온실들을 현대적으로 건설하였을뿐만아니라 온실작업의 자동화,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나무모를 한해에 두번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원형삼목장, 온실에서 키워낸 나무모들을 야외에서 적응시키는 재배장, 용기나무모 재배구들에 현대적인 판수설비와 해가림장치를 설치했는데 뿐만 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종자선별로부터 파종, 나무모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들을 고도로 자동화, 호프선화하였으며 기질생산공정과 나무모저장시설들도 그르하게 갖추어 놓았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산림과학을 선도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지과 과학기술보급거점도 잘 꾸려놓았으며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관리청사와 문화회관, 종합편의시설, 종업원살림집들도 잘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양묘장이란 어떤것인가 하는 정확한 인식과 표상을 줄수 있게 건설된 122호양묘장의 연간 생산량은 2,000여만 그루라고, 모든

도들에게도 이 양묘장과 같은 토지절약형, 로력절약형양묘장을 건설하면 한해에 2억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시면서 도당위원장들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자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어 양묘장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양묘장을 바라보시며 규모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다고 하시면서 양묘장이 아니라 공원화된 하나의 거리같다고, 별세상에 온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어제와 오늘을 보여주는 직관들을 보시며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 복구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거듭거듭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하시면서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과 기풍이 어떤것인가를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인민군대를 앞장에 내세워 산림 복구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려는 당의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가 122호양묘장건설을 통하여 당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의의깊은 로력적성들을 드렸다고, 힘겨웠지만 이렇게 해보느니 얼마나 좋은가고, 바로 이것이 김일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한 설계단위, 시공단위, 과학연구부문에 당 제7차대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에 맞게 산림 복구전투의 강력한 병거장인 양묘장의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종업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취업을 끝없이 빛내이시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들의 일터를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시켜 주시고 또다시 불멸의 명도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기자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판》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스페리에주제사상연구소조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시였다. 로작발행식이 9일에 진행되였다. 발행식 장정 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영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스페리에주제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필레비는 발행식에서 뜻깊은 시기에 김정은동지의 로작을 출판, 발행하는것은 조선인민의 친근한 빛인 자기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며 웅장한 분문이라고 말하였다. 소조는 앞으로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디》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만나 미드 타르보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시였다. 단행본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져있다.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5월 6일에 성대히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하여 출판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 이시디》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게 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위대한 주제 사상을 창시하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개척하시였으며 194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은 오늘 김정은동지께서 의의 있게 계승되고있다. 출판사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위업실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것을 바라면서 독자들이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무명예 군은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리라고 확신한다. 로작발행식이 9일 출판사에서 진행되였다. 출판사 총사정 마웅 마웅 나이는 연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로작을 출판, 발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김정은동지의 로작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혁명정신과 업적을 집대성한 불멸의 유산이다.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고귀한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9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광범히 보도하였다. 구비아의 브렌썬 퍼미나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자와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이 나라의 신문 《나와이 와우프》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라이신문 《방코포 포스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선》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께서 당의 위원장으로 추대》라는 제목으로 당대회 주석단에 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과 김정은영도자의 원위가 절대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문들인 《엔 문도》, 《엔 베리도》, 《라 민구아디리아》와 라지오TV방송, 비스포르라지오TV방송, 에세프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캄보디아국가지오방송은 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의 전문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신문 《사우모시》, 모닝 포스트와 동광위성 TV방송, 신화망, 환구망, 국제방송망, 청년망, 필립핀신문인 《인민》, 《하노이 머이》, 라오스신문 《인민인 마이》, 네팔텔레비전방송인 《AB 뉴스》, 《마이엔》, 인디언의 신문들인 《인두》, 《인디안 익스프레스》, 《이제 내 에이리》,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유엔아이통신, NDTV방송, 이란의 신문인 《메인 인 리피니》, 《이란 뉴스》, 《아이비셀 트리플》, 타이의 신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을 널리 보도

높이 추대함에 대한 결정이 취해졌다. 김정은영도자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전세계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영원의 표시이다. 대외참가자들은 김정은영도자를 만장일치로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이 나라의 신문 《나와이 와우프》도 같은 내용을 실었다. 라이신문 《방코포 포스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을 의사에 의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시였다. 파키스탄신문 《더 네이선》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께서 당의 위원장으로 추대》라는 제목으로 당대회 주석단에 게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 사진문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영도자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영원한 승리와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것과 김정은영도자의 원위가 절대적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나라의 신문들인 《엔 문도》, 《엔 베리도》, 《라 민구아디리아》와 라지오TV방송, 비스포르라지오TV방송, 에세프신도 같은 내용을 전하였다. 캄보디아국가지오방송은 당 제7차대회 결정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 데 대하여》의 전문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신문 《사우모시》, 모닝 포스트와 동광위성 TV방송, 신화망, 환구망, 국제방송망, 청년망, 필립핀신문인 《인민》, 《하노이 머이》, 라오스신문 《인민인 마이》, 네팔텔레비전방송인 《AB 뉴스》, 《마이엔》, 인디언의 신문들인 《인두》, 《인디안 익스프레스》, 《이제 내 에이리》,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유엔아이통신, NDTV방송, 이란의 신문인 《메인 인 리피니》, 《이란 뉴스》, 《아이비셀 트리플》, 타이의 신

문 《양코 포스트》와 각 텔레비전방송용도로, 튀르키예신문들인 《메일리 싸야르》, 《하세르메르》, 《일제리인 리베르티》, 《알 빌라드》, 에리트레아 《알 아흐람》, 몬도비의 인터넷홈페이지 《파블리카》, MD와 에르메레트 월드라TV, 코르나아신문 《아제르네스》, 벨라루스의 신문들인 《메디아 칼》, 《인베스트. 베제》와 포우스통신, 영국의 신문들인 《데일리 메일》, 《스카이 뉴스》, 《인러내슈널 비즈니스 타임스》, ITV NEWS, 프랑스의 신문 《몽드》와 프랑스로선선협회 인터넷홈페이지, 폴스카신문 《에스트보스카르》, 체코의 신문 《할로 노비니》와 인터넷신문 《노민키》, 스위스의 신문들인 《트리블 드 제네브》, 《리 마블》, 《리 웨》, 오스트리아 신문 《레크 슈판다르트》, 미국의 AP 통신과 신문 《뉴욕 타임스》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1128호  
주제105(2016)년 5월 11일  
평양시 룡성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새 세계 교육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룡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높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장성국가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서 성과를 이룩한 평양시 룡성구역에 모범교육구역칭호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감보자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프롤렌  
감 보 자 왕 국 국 왕  
**노로돔 시하모니페 하**  
나는 생일 63쵸를 맞는 국왕께하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노로돔 시하모니페하와 함께 마련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목적인 친선관계가 변함없이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국왕께하가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5(2016)년 5월 14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신 60돐 기념보고회가 13일 함흥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는 도안의 당, 정전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함경남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신동철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5(1956)년 5월 함경남도안도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가 나아갈 길을 활짝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인준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경남도 당일성 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당 제3차대회결정령을 위한 함경남도 당당체들의 과업》에서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과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인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함흥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비료생산량을 높이며 카바이드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의 도대를 마련할

데 대한 문제, 종합적인 대형기시설 비생산기지를 꾸리며 도시의용품을 높이는 문제 등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나서는 과업과 담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는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 문화발전,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고 지난 60년간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이 높아지고 자재의 원료에 의한 종합적인 대형기지와 대형기시설비생산기지가 일면서 주체비달본과 비료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첨단지열발전, 압축기 등 현대적인 대생산기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최근년간 함흥시가 로동계급의 도시답게 훌륭히 변모되었으며 총합과 단전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되어 조립공업과 축산, 수산업 등의 물질기술적대대가 튼튼히 다져진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또한 함주군 동봉합동농장에서 동해안농사의 본보기가 창조되고 농업생산이 늘어났으며 많은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러졌다고 그는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서는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적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정신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발전소들에서 민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높이 울려 전력생산을 최대한 높이는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추세우며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높임으로써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단편과 수동지구의 생산들과 공장, 기업소, 관공들에서 연, 아연, 마그네

【조선중앙통신】

#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한 승리와 영광의 대회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는데 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은 거례와 세계의 이름이 집권된 속에 상대적 진흥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성과 절대적인 신뢰에 떠받쳐져 자기의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고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결속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불멸의 대장을 마련한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기에 백두의 대업을 완수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룬 가장 의의깊은 대회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을 알리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된 때로부터 당대회를 혁명적대경사로 빛내던 전 과정은 우리 당이 조국과 혁명, 시대와 인민을 위하여 어떠한 임무를 찾아왔으며, 당을 따라 영리한 힘집을 갈고 전진군인의 혁명적신념이 얼마나 확고하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얼마나 강대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언저를 굽힐없는 공격정신과 자강력세일주의로 최약의 역경속에서도 세운 물레추는 만리마산화복을 창조하여 총성의 70일전투기복장을 공적 높이 이르게하고 어머니당대회를 세상에 없는 대경사적승리로 성대히 경축하였으며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자주의와 정의의 기치인 조선로동당의 대회에 가장 열렬한 축하와 성원을 보내었다.

당 제7차대회의 빛나는 승리는 천리세인의 예와 비범한 명도,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력사의 돌풍을 맞받아나기하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실력을 만방에 떨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사상과 신념의 장자,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억세게 키워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명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통하여 우리 당은 당의 창조자, 건설자이며 주체적신념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우셨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만이 하나의 사상의지와 혈연의 늬대로 굳게 뭉친 필승불패의 강령을 다시금 시위하고 절대불변의 혁명적원칙들과 전략적로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웅대한 목표를 온 세상에 공표하시어 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에서 천만인 드넓지 않은 기쁨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로 새로운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당장전 일흔을 감성변형하는 주체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빛내던 승리의 기세도 힘차게 전진하고있던 주체104(2015)년 10월 30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혁명정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소집을 결정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정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백두에서 개척된 수령의 위업, 당의 위업을 전진히 승수고수하고 당 제7차대회를 혁명의 최전선기로 빛내던 혁명, 투쟁의 대장들의 피를 끓이며 승리의 5월을 향해 총알피를 내었다.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진군에는 결코 반란로가 아니었으며 우리가 강고하고 앞서는 것을 눈에 다스리쳐며 여기 조선의 위대한 대진군을 막아보려고 말하려는 원수들과의 침한에 대결전, 당정쟁쟁사승원이었다.

반반민족주의의 특대사변들인 주체조선의 첫 수호선사들의 원전성공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걸친 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와 사상학살의 폭침행적연속을 감행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해 미쳐날뛰었다.

력사에 유례없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수들의 가장되는 제재와 전쟁도발행동을 절연시키며 지치지 않거부버리시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명한 명도밑에 주체조선의 핵공격능력과 군사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빼앗으려고 최후발악하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천수를 내리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총돌적, 총대진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혁명적의지를 깨워주었다.

주제 105(2016)년 2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 군사위원회, 공훈주요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원회 편지가 발표되고 당 제7차대회를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으로 맞이할데 대한 당중앙의 호소라 총성의 70일전투기로 전당, 전군, 전민이 신약같이 펼쳐어졌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불합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더욱 분분히 부장시키기 위한 힘집적 정치사상사업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격진장마디에서 만리마산화복을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창조출되었다.

대중적영웅주의와 경정열들이 온 나라를 뒤덮어 전력, 식안, 공숙, 기세, 경공양, 농업, 건설, 과학연구, 체육부문을 비롯한 중요건설들에서 총돌적전진행위들이 창조되고 따라나서기, 따르배우기, 경정고취운동이 도처에서 파급된 전제되어 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리는 혁혁한 전과들이 총성의 70일전투기복장의 제치물에 빛나게 아로새겨졌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주체조선의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파시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각 도, 시, 군당대회들이 진행되었다.

4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대 대회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명도자이며 백두산대국의 강령과 존엄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와 각 도당대회들에서도 백두의 천출이신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총창하게 받드는 길에 우리 당의 백전백승과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연변이 있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을 담아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할데 대한 결정서가 만일일지로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는 탁월한 사상과 명도로 우리 당을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선기를 펼쳐주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펼쳐가시는 최세의 천출이신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심과 고결한 충정의 발현이었다.

각 도당대회들에서는 당 제6차대회 이후 백두산세위인들의 현명한 총도따라 결이 온 승리적로장을 공표하시어 총도따라 당시와 념원을 새로 선거하였으며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불라는 총성과 애국적신심성을 높이 발휘한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 제7차대회 대표자, 방정사로 선지, 추천하였다.

각 도당대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최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가 발표되었다.

당 제7차대회를 최상의 성과, 최고의 로력적위훈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성의 70일전투기복장은 승리의 승리로 결속되어 전국적인 투쟁계획이 144개로 초파한수되고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로 강성발전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원산공민발전소를 비롯한 수백개의 대성이 준공, 조영 및 개진되었다.

영광의 5월을 향한 총진군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행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같이 일떠세워나가는 원만하고의 억척있는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철불굴의 기세와 당대내 배병, 무궁무진한 힘을 세세일어 특특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한 크나큰 격려와 기쁨, 역사적인 70일전투의 빛나는 승리를

안고 대회참가자들이 5월 2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였다.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변들과 대성공을 마련하고 주체조선의 만리마산화복을 창조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로 드린 금지도는 파급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들어서는 승리자들을 당, 무력기관 일군들과 시내근로자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민주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승리 금수신대양군들을 찾아 수령님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렸으며 어머니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진례없는 로력적신물을 마련하고 총성의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된데 대한 충정의 보기를 올렸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속속을 찾아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영광의 당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며 온 나라가 경축분위기로 실미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중앙사진전람회와 중앙미술전시회가 성황리에 개막되어 백두산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인 혁명과 전진을 승리적으로 향도해 온 우리 당의 영광찬란한 행로를 감명깊게 펼쳐보이였다.

당 제7차대회를 맞이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당 및 국가 수반들,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조직들, 각계 인사들 그리고 주주의교단, 무한단, 경제 및 무역회사들, 외교단체들, 국제기구 대표부들이 속속 축하헌치, 축하꽃바구니와 선물, 메달, 명예칭호, 상장들을 드렸다.

또한 당 제7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여러 나라의 정당들과 당수들, 전신 및 현대성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각계 인사들이 축전과 축하헌치, 축하꽃바구니를 보내었다.

주제106(2016)년 5월 6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 우리 일군들과 전 보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성대히 개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개회사에서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총성과 열화같은 경의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강령사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우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에 따라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당과 수령의 명도를 총창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공업, 세계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힘을 바친 할일혁명투사들과 애국렬사들, 일군들과 근로자들,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부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세에 따라 전체 대회참가들과 온 나라의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대회회장부에서 소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 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와 재중국조선인총련합회에서 드리는 축하헌치와 함두로써 축하자들이 정중히 증명되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조선 중앙위원회에서 축하헌치와 축기를 보내어 오고 당 제7차대회일오로 조선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전로정국후방 중앙위원회에서 축하헌치와 축기를 보내어온 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대회에 당 제7차대회를 보위하는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총성의 70일전투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기동, 공작, 기업소, 협동농장 근로자들과 일군들에게 축하헌치를 보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총정기간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중앙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이룩한 불변의 업적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실례들을 펼쳐보이셨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며 자강력세일주의를 틀어쥐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파급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고 들어서는 승리자들을 당, 무력기관 일군들과 시내근로자들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역사적인 보고를 크나큰 격정속에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가슴에 대를 이어 결출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나가는 크나큰 금지와 자부심,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전략,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펼쳐가는 조선로동당과 주체조선의 장엄한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차피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제시된 강령적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토론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우리 당과 혁명정당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변의 기치로, 주체혁명적의 백년대의 진로를 열어나가는 웅대한 강령으로 전면적으로 지지하면서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위업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총성의 결의들을 격려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7차대회 3일회의에서 하신 결론에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세들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에게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과업관철을 총력진행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투쟁구호를 제시하시었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헌치, 인민군조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들의 전진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소년단학사단과 김일성사회주의학생동맹총합단인 300만 조선소년단원들과 500만 청년전위들의 다함없는 총모의 총성의 마음을 담은 함두고수한 꽃바구니를 삼가 드렸다.

우리 조국을 세상에 떨치고 있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이고 싶고 승고한 후대사상, 미래사상과 력사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결정서에서는 당규약에 전당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수반이시며 조선로동당 위원들의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명도하는 우리 당의 최고직책이라는데 대하여 새롭게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5월 9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불라는 지향과 한결같은 념원을 담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명도로, 고매한 격정을 지니시고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약용하는 활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의 대표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령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열광적인 박수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퍼쳐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을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시고 주체조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어 우리 당과 혁명당에 불변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의의 표시이다.

그것은 또한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운명의 피를 끓여 오고 사상도 승결도 발결음도 같이하며 죽어도 변치않은 혁명신념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는 일대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규약과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제도에 따라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의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위로 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하였으며 정무국과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대회에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산화복의 불길높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적 앞으로!》**가 발표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폐회사를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폐회사에서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위원이자라는 무거운 중임을 맡겨는 대표자들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최대의 신념과 기대를 상징으로 받아안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한몸을 아낌없이 내리고 끝없이 싸워나갈것을 엄숙히 맹약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천만군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명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당 제7차대회에 결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휘황한 실례대로 우리 당과 인민의 기상을 세계전방에 펼쳐나갈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주체혁명위업수령의 일대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진행된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억던 드물지 않은 기쁨을 만끽하고 조국혁명에서 가장 웅대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높은 목표와 투쟁정령을 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자강력세일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총공적인, 총정사상을 범범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내세운 대회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휘황찬란한 진로를 밝히고 원만군민을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으로 불러일으키는 천수적기지로 되었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5월 10일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위원이자인 김정은동지를 경축의 꽃물결이 끊이지는 광장에 모시고 인민이 우리로 이치는 감격의 환로가 5월의 맑고 푸른 하늘에서 배회되었다.

김일성군중대회 및 군중시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결같이 맹세한 당과 혁명정당을 위한 만리마산화복 조운중에 총렬기, 총대진해나갈 천만군민의 기상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영원무궁한 영광을 담아 환희로운 춤바다를 펼쳐놓은 청년학생들의 아외가 경축의 광장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주에 모시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한길로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청년강국 주안공들의 애국총성의 열기가 활화산인 마오로 청년전위들의 해발행렬은 경축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불의 위업을 총창하게 만드는 청춘들의 피끓는 심정의 분출인양 도도히 흐른 장엄한 불의 대회는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렬적전진 영웅청년신화왕조의 순간순간을 이끌어온 그 기세, 그 기복으로 당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내달릴 청년명망들의 청성의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주체혁명의 진로를 완히 밝힌 불변의 대강, 강령적지침을 받아안은 인민의 기쁨을 활황한 불꽃폭포로 수놓은 경축의 축로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강성조선의 광명한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의 불꽃과, 승리의 불꽃이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경축하는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 **《영원히 우리 당 마라!》**가 11일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력사에 특기할 승리와 영광의 대회를 환희로운 경축무대로 뜻깊게 장식한 합동공연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새로운 리정표대로 당대회 원의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되었음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당 제7차대회이 성대히 진행된 영광의 대회장을 배경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대회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가 **《만세!》**의 환호성으로 퍼져나갔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공연이 무한관과 인민문화궁, 유류관, 중앙관, 평안관, 평양고려호텔, 양각도국제호텔, 종합체육사 **《무지개》**호, 시당대 **《태평양》**호에서 진행되었다.

대회기간 참가자들은 민중대와 대성산혁명사관, 조국방정정사적지, 청년운동사적관, 과학기술전당 등을 돌이보고 구경할에서 예술공연들을 관람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백두산세위인들의 불변의 업적과 인민의 자주적인 공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바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헌신의 모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어머니당대회에 드리는 총성의 로력적선물로 제작한 기계실비전시장을 참관한 그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힘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는 한눈의 보검이며 위대한 투기라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대회참가자들이 영광의 대회장에서 다진 명세를 지겨 당대회회장관들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혁명의 새시대 전위투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고자 하는 열망을 내비쳤다.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명세문제보임을 가지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서 높이 추대한 영광의 대회장에 경 뜻깊은 모임을 가진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중심으로 받들어 당대회회장관들께 편만공연을 총렬기, 총담시위는 불씨가 되고 불길이 필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우리 운명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대로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며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우리 당과 조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이 제시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고야말것이다.

주제105(2016)년 5월 14일  
이철 양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대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자상모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경축 대중조선인총련합회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만경대기념물들의 혁명활동들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혁명

## 대상건설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공격전 전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 보고를 피끓는 심정으로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로동당만세, 결사관철의 합성을 우뢰소리마냥 퍼져 나간 만리마산화복조운으로 새로운 기세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끈끈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 거머쥐 인민의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경쟁강국을 일떠세워야 하겠다.》** 중앙정치기회부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 제7차대회 보고를 무한한 격정속에 접한 즉시 단대단결의 위력으로 결사관철하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치고 결제있게 실천해 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장신복소속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만리마산화복조운들의 불길높이

대상건설과제를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공격전 전개... (Continuation of the article text)



